수필집

백조의 꿈

그대는 묻습니까?
내 무슨 새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내 서슴없이 대답하리다
이 세상 하많은 새들중에서도
백조를 가장 사랑한다고!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하얀 명주 두른듯 날씬한 몸매에
검어도 쭝긋한 부리
검어도 껑충한 다리
하냥 아름다와서만이 아니웨다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바다나 호수, 강가에서
목만 살그머니 물속에 잠그고
파란 풀 채여먹는 그 모양
하도 귀여워서만이 아니웨다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아한 그 자태
화가의 시야에 주인공 되여
수려한 대자연의 풍치를
한결 돋보이게 해서만이 아니웨다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한번 펼쳐 퍼덕이면
저 높은 산도 단숨에 넘어
가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예는
그 억센 날개가 부러워서웨다
……

— "내 사랑하는 까닭은"

김경석 저

연변인민출판사

수필집

백조의 포부

김경석 저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石　华
责任校对：金海燕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白鹤的胸怀：朝鲜文 / 金庚石著.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10.6
ISBN 978-7-5449-1186-3

Ⅰ.①白… Ⅱ.①金… Ⅲ. ①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①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02791号

白鹤的胸怀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8.25　字数：25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1186-3　（民文）
版次：2010年6月第1版　2010年6月第1次印刷
印数：1-700册　定价：20.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백조의 포부》를 내면서

김경석

《백조의 포부》는 평론집《문학창작과 표현수법》(2009년 7월 출판)의 뒤를 이어 세상에 내놓는 나의 수필집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0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쁨과 영광을 안고 우리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한해 2009년을 떠나보내는 양력설에 즈음하여 다가오는 새해 즉 나라의 "11·5전망계획"실시의 마지막해이며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생활"을 주제로 세계박람회가 상해에서 열리게 되는 희망찬 해인 2010년을 앞두고《백조의 포부》를 엮고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걷잡을수 없다. 그것은 평생에 붓을 들어 글을 써오면서도 수필집을 엮지 못하고 타계한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행운이라 느껴서이겠고 학창시절에 문학의 바른길로 이끌어주신 모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끼지 않으신 그 로고를 내내 잊지 못해서이며 더우기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무렵 문필사업에로 등을 밀어주시며 신문기자, 신문편집을 맡겨주신 당의 배려를 정녕 잊을수 없기때문이라 하겠다.

지금 머리말을 쓰고있는 이 시각에도 소학교 소년시절에 첫 작

품을 신문에 발표하도록 이끌어주신 최인숙선생님, 작품을 벽보에 실어 동학들앞에서 칭찬하며 문예의 새싹으로 자라도록 고무격려해주신 강두관선생님, 중학교 어문수업시간에 외국소설 "귀환병"을 감명 깊게 읽어주시던 리남규선생님, 조선시인 김상오의 시 "집"을 격조높이 읊어주시던 장경추선생님, 학생들의 시선을 모으며 정력적으로 강의해주시던 림천선생님, 작문노트에 평어를 써주시며 지도해주시던 라영화, 심희섭선생님, 대학 "문선습작"과를 진지하게 가르쳐주시던 김현근선생님, 작가가 되려면 먼저 기자가 되는것도 좋다고 고무격려해주시던 현남극선생님… 여러 스승님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기실 문학공부를 시작할 때엔 어느 한 장르에 치중하지 않다가 후엔 운문으로 기울어지긴 했지만 문선습작과를 배우고 신문문예편집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수필을 망라한 다양한 장르의 문예작품들을 읽고 편집하였으며 또 손수 소재를 발굴하여 집필하고 간행물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오늘 이 수필집을 엮는 토대가 될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백조의 포부》는 기성발표작과 신작수필 도합 62편을 수록하였는데 독자들의 열독에 편리하도록 다섯 부분 즉 5편으로 나누어 엮었다. 제1편 "교정의 은행나무"에는 아름다운 리상과 겨레의 우량한 전통 및 자랑찬 미덕, 미풍 선양과 관련된 수필을, 제2편 "명작의 생명력"에는 시대와 작품, 생활체험과 형상창조, 작가의 수양과 창작자세 등에 관련된 수필을, 제3편 "성공의 디딤돌"에는 상품경제시대의 장사와 정보, 경영묘방과 량질봉사, 소비심리와 제품의 질 등에 관련된 수필을, 제4편 "양생의 근본"에는 보건양생과 건강장수에 관련된 수필을, 제5편 "독서의 밤"에는 20세기 50년대 사회의 일각을 반영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한 학창시절의 시험작문, 일기체수필 등을 모두어 엮었다.

그리고 일찍 신문간행물에 발표되였던 일부 작품가운데 "수감"이나 "단상" 등 이름을 단것도 있긴 하지만 수필장르의 공통성을 감안하여 따로 세분하지 않고 수필로 모아 엮었으며 머리말에 이어 책자의 표제와 관련된 백조를 찬미한 시 "내 사랑하는 까닭은"와 가요 "내 만약 백조라면"을 함께 수록하였음을 부언한다.

《백조의 포부》에 수록된 작품들에는 아직도 미숙한 점들이 적지 않으리라 보면서도 독자들 특히는 후배들에게 유익한 자양분이 얼마간이라도 스며있다면 다행으로 간주하겠다.

선배님들과 문우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로부터 진중한 조언과 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끝으로 이 책자의 출판에 관심을 돌려주신 연변인민출판사 사장님을 비롯한 문예편집실, 장정설계실 여러 선생님들에게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김경석

2009년 12월 28일
연길 자택에서

내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는 묻습니까?
내 무슨 새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내 서슴없이 대답하리다
이 세상 하많은 새들중에서도
백조를 가장 사랑한다고!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하얀 명주 두른듯 날씬한 몸매에
검어도 쭝긋한 부리
검어도 껑충한 다리
하냥 아름다와서만이 아니웨다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바다나 호수, 강가에서
목만 살그머니 물속에 잠그고
파란 풀 채여먹는 그 모양
하도 귀여워서만이 아니웨다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아한 그 자태
화가의 시야에 주인공 되여
수려한 대자연의 풍치를
한결 돋보이게 해서만이 아니웨다

내 백조를 사랑하는 까닭은
한번 펼쳐 퍼덕이면
저 높은 산도 단숨에 넘어
가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예는
그 억센 날개가 부러워서웨다

그 날개 나에게도 돋친다면
내 못 넘을 고비 있으리까
어둠속에서 광명을 찾아
폭풍속에서 태양을 찾아
사선에서 희망을 찾아…

꽃피는 시절이면
북국의 얼음땅 찾아 떠나고
단풍드는 시절이면
어린 자식 앞세우고 돌아오는 그 성미
어찌 꽃참새에 비기리까

사시절 처마밑에서

한가로이 세월 보내며
하루종일 조잘대기만 하는 꽃참새
그 누가 나더러 꽃참새를 사랑하라면
이보다 더 큰 치욕 어데 있으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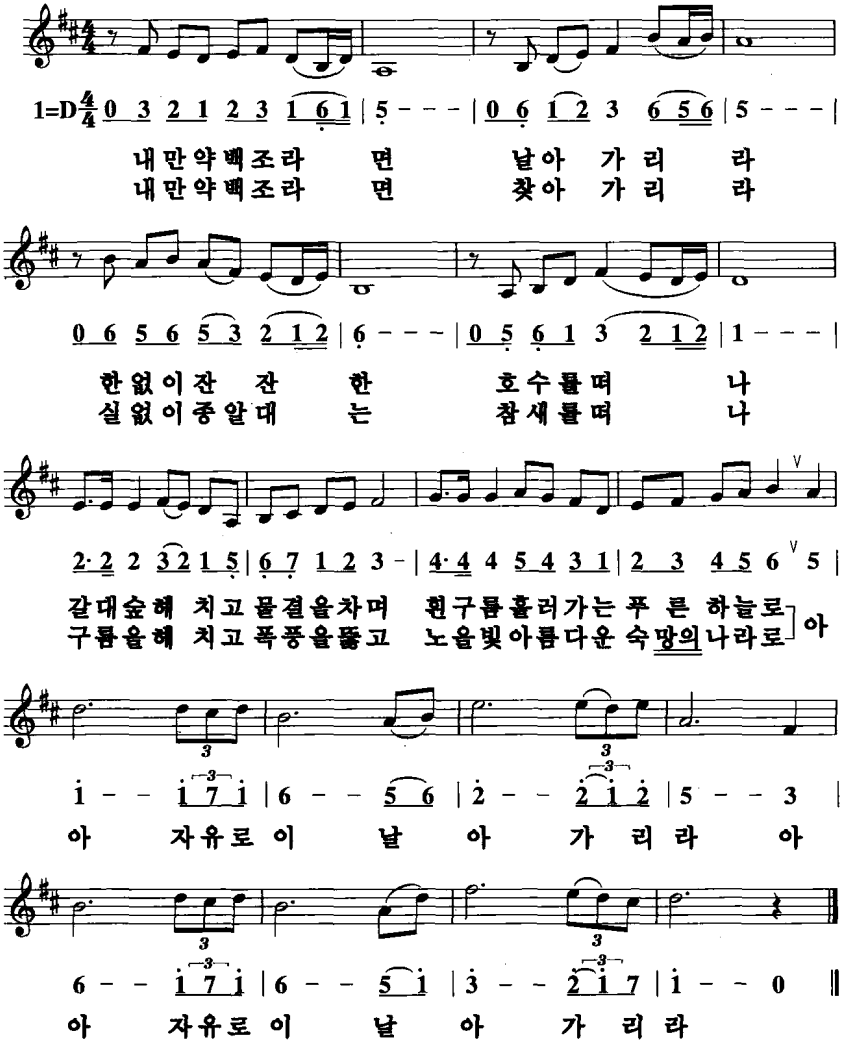
이 시각도 설레이는 이내 마음은
백조와 더불어 날아가고싶으웨다
한가닥 신념으로 나래를 퍼덕이며
노을이 불타는 저 하늘가로
금빛이 찬연한 래일의 락원으로!

그대는 묻습니까?
어이하여 그리도 백조를 사랑하느냐고
내 서슴없이 대답하리다
백조의 마음에 내가 살고
내 마음에 백조가 살기때문이라고!…

《연변일보》 1986년 12월 17일

내 만약 백조라면

Moderato 간절하게 깊은 정서로 김경석 작사, 작곡



차 례

《백조의 포부》를 내면서 …… 1
내 사랑하는 까닭은(시) …… 4
내 만약 백조라면(가요) …… 7

제1편 교정의 은행나무

반디불빛을 두고 …… 3
나무잎에 대한 련상 …… 6
황금시절이 지나가지 않았다 …… 9
천금 주고도 바꿀수 없는 선물 …… 12
리발관에 들어설 때마다 …… 15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초신을 신지 않더라도 ····· 17
교정의 은행나무 ····· 21
과일에 깃든 미덕 ····· 25
너무 이른 결론 ····· 29
자식과의 언약 ····· 32
훌륭한 후대 ····· 36
자립이냐 의존이냐 ····· 41
백조의 포부 ····· 44

제2편 명작의 생명력

무언의 가르침 ····· 49
적절한 독서 ····· 52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 56
직접체험과 간접체험 ····· 59
작가의 관찰력 ····· 63
종이피아노 ····· 68
작가와 근면성 ····· 71
작자의 만족감 ····· 75
음악거장의 어깨 ····· 79
예술과 성실 ····· 82

금싸래기같은 마음 ····· 86
존중은 나로부터 ····· 91
명작의 생명력 ····· 96
붓은 날마다 놀려야 ····· 100

제3편 성공의 디딤돌

장사와 정보 ····· 105
오묘한 판매술책 ····· 108
"남긴 술 식당"에 대한 생각 ····· 111
"맛보이기"의 흡인력 ····· 114
소비자의 반발심 ····· 117
놀라운 재간 ····· 120
국수집에서 ····· 123
유모아서비스 ····· 126
"계화"표의 계시 ····· 129
광고와 시 ····· 132
"반성광고"례찬 ····· 136
"량심목욕탕" ····· 139
일은 가리지 말아야 ····· 143
성공의 디딤돌 ····· 147

제4편 양생의 근본

자연에 순응하라 …… 153
한 예술가의 생활철학 …… 158
조란꽃의 품격 …… 164
숨겨진 사랑 …… 168
꼬마거부기 …… 173
지혜겨룸의 예술 …… 177
건강은 화필끝에서도 온다 …… 181
가창도 양생 …… 185
음악을 감상하는 리유 …… 188
무도장의 타이름 …… 193
낚시군을 만날 때마다 …… 198
매일은 못 가더라도 …… 204
양생의 근본 …… 208

제5편 독서의 밤

독서의 밤 …… 215
호교의 밤 …… 218
환송 …… 223

길림 북산공원에서 …… 226
행복한 사람 …… 229
지망선택 …… 236
푸른 수첩 …… 241
처음 착암기 들고 …… 244

김경석 략력 …… 248

제1편
교정의 은행나무

…그날의 은행나무는 흑풍에 자취를 감추었어도 부채 모양으로 곱게 생긴 그 따란 잎사귀는 언제나 이 마음에 속속들이 푸른 물을 들이리라, 하늘하늘 쉼없이 쉼없이…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